

테마 1 : 관광 진흥 / 리저널 리포트

테마명	관광 진흥	지방정부명	투아티엔후에성
시책 명칭	2025 년을 겨냥한 2018~2020 년 투아티엔후에성 스마트 투어리즘 에코시스템의 구축		
개 요	관광객의 여행정보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투아티엔후에성에서는 관광을 통한 매력적인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선진, 프로모션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. 이 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솔루션이 정보기술을 구사하여 종래형 관광과 전자 투어리즘(e-투어리즘)을 조합시키는 스마트 투어리즘 에코시스템의 구축이며 이 에코투어리즘에서 관광목적지와 관광서비스, 기념품을 프로모션하는 것이 투아티엔후에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만족도와 체험의 기회를 높인다. 투아티엔후에성 관광국은 이 프로젝트를 실행, 운영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.		
예산액	34 억 베트남 동	146,805 미달러 (약 1,600 만엔)	

1. 과제 (현재 상황)

투아티엔후에성은 베트남 문화·관광의 대표적인 중심지의 하나로, 베트남 중부의 주요경제지역에 위치하는 5 성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. 제 4 차 산업혁명(인더스트리 4.0)의 조류에 따라 투아티엔후에성의 관광산업은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관광진흥전략과 스마트 투어리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. 관광에 있어 커스터머 저니는 정보검색 및 여행계획, 현지경험, 경험공유라는 3 단계로 분류된다. 스마트 투어리즘 에코시스템이 구축되면 이 모든 단계가 스마트폰 상에서 생성되고 투아티엔후에성에 관한 스마트 투어리즘의 데이터와 정보교환 시스템이 통합된다.

2. 목표 (장래상)

- (1)투아티엔후에성을 스마트 관광목적지로:선진기술을 기반으로 한 **혁신적인 관광명소**로 변모시킴으로써 관광목적지로서의 지속적인 발전과 관광객의 교통 편리성을 보증하고 관광객 교류를 주변환경에 융합시키는 양호한 환경을 창출할 수 있다. 또, 관광객의 현지경험의 질이 높아지고 현지주민의 생활수준도 향상된다.
- (2)**스마트 익스피리언스**의 창조:관광객은 현지에서 경험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데이터로서 작성·기록·추가함으로써 경험의 공통기반을 창조할 수 있다.
- (3)**스마트 비즈니스 및 스마트 매니지먼트**의 서포트:관광정보원의 교환과 여행경험의 통합을 서포트한다.

3. 시책 내용

(개요)

- a) 2020 년까지 달성해야 할 내용
 - 스마트 투어리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컴퓨터 기기와 키오스크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에 투자한다.
 - 투아티엔후에성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 상에 관광산업을 통합·공유·접속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스마트 투어리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「Iot (물건의 인터넷)」 플랫폼을 개발한다.

- 관광산업의 완전한 전자운영을 목표로 관광 매니지먼트 분야에 있어 전문적인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. 국가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관광을 관할하는 정부관광 매니지먼트 기관과 관광산업기업의 연계를 실시한다.
- + 주 내의 투어 가이드, 국제여행사, 숙박시설에 관한 모든 데이터의 디지털화.
- + 관광목적지와 관광명소, 관광 서비스시설, 관광객에 관한 디지털 정보 시스템의 구축.
- + 주요관광 목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목적지 정보와 관광서비스, 자주 사용되는 여행회화의 번역과 같은 스마트폰 앱의 개발.

(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)

- 투어 가이드, 국제여행사, 숙박시설에 관한 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. 또한 투아티엔후에성이 보유한 35 개소 관광목적지와 기념품, 관광 서비스의 디지털 콘텐츠도 작성중이다.
- 투아티엔후에성 관광국은 2018 년부터 투아티엔후에성 관광 포털사이트 「visithue」를 계속하여 그레이트 업시켜 관광객에 대한 행사정보 제공과 관광목적지 홍보 등을 하고 있다. 그리고 투아티엔후에성의 관광촉진책으로서 관광객이 스마트폰으로 관광정보를 간단히 입수할 수 있도록 iOS 및 Android 양쪽의 OS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「visithue」 앱을 활용하였다. 그리고 VnTrip 사의 협력 하에 360 도 파노라마 사진기술을 구사한 360 도 투어를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외에 Viettel 사와의 연계에서는 전자결제 시뮬레이션도 추진하고 있다. 또한, 후에유적보존센터는 후에시가 보유하는 유적들에서 버츰 리얼리티(VR)기술과 음성가이드를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다.

(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)

- 스마트 투어리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.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컴퓨터 기기와 키오스크가 필요하다.
- 투아티엔후에성 관광국의 데이터 베이스가 불완전하다. 투아티엔후에성의 숙박시설 데이터 외에 관광객과 관광목적지, 관광명소, 관광서비스 시설의 종합 디지털정보시스템의 고안·구축이 필요하다.
- 투아티엔후에성 관광 포털 사이트 「visithue」에 게재되어 있는 관광목적지와 기념품, 관광서비스의 정보 갱신이 필요하다. 또한, 각 관광객의 니즈에 맞는 여행계획, 예약, 결제, 온라인 관광서비스의 관광지원앱을 통합하는 외에 관광객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수신하여 그에 대응하는 체계도 필요하다.
-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편리한 스마트폰 결제 앱이 개발되지 않았다.
- 투아티엔후에성 관광 포털 사이트 「visithue」의 영어판을 완성시킴과 동시에 현행 베트남어판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.
- 경찰 및 세무국과 연계하여 온라인 숙박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.